

포스트모던 사회와 패션에 표현된 옵아트

이민선

상명대학교 생활환경학부 의류학 전공 조교수

예술사에서 옵아트는 화가와 비평가 사이에서 냉담한 반응을 받은 분야였다. 그러나 옵아트는 여러 분야의 디자이너들에 의해 다양한 제품 디자인에 응용되었고, 특유의 주목성과 친화성으로 인해 생활 속에 스며들게 되었다.

1960년대에 옵아트라는 미술 분야가 정립되어 패션을 비롯한 여러 가지 제품 디자인에 응용되었던 이후, 현재 패션 분야에서 옵아트는 전성기를 이루고 있다. 2003년 F/W, 2004년 S/S 컬렉션에서 엘리 키시모트(Eley Kishimoto), 블락(Blaak) 등은 옵아트를 재해석한 작품들을 발표했으며, 대담한 패턴들을 선보여 왔던 에트로(Etrot), 미소니(Missoni), 베르사체(Versace) 등의 브랜드들도 옵아트의 응용으로 더욱 활기를 띠고 있다. 또한 이러한 유행은 여성복 뿐만 아니라 남성복에서도 표현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옵아트가 패션 속에 부활되어 전성기를 이룬 이 시점에서 옵아트 패션의 의미를 재조명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옵아트의 개념적 특징을 정리하고, 옵아트 패션의 조형적 특징을 분석하였다. 또한 이러한 특징들을 기반으로 옵아트 패션이 갖는 의미를 포스트모더니즘적 시각에서 재해석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연구는 '유행이 순환된다'는 패션 분야의 특수성을 고려할 때, 반드시 다시 나타날 주요 트렌드인 옵아트에 대한 사적 기록임과 동시에 새로운 방향의 디자인 방법론을 모색하기 위한 자료가 될 수 있다.

옵아트의 개념적 특징은 첫째, 기법적인 면에 있어서 색 면을 균등하게 칠하는 미술이고, 둘째, 관객의 참여가 요구되는 시각 예술이며, 셋째, 착시로 인한 움직임의 전제로 한다. 이러한 개념적 특징은 옵아트 패션에서 주목성, 익명성, 역동성이라는 조형적 특징으로 표현된다.

옵아트 패션이 갖는 포스트모던적 의미를 앞

서 고찰한 옵아트의 개념적 특징 및 조형적 특징들을 기반으로 해석하고자 시도하였으며,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옵아트의 단순화된 기법적인 특성과 이로 인해 발생하는 주목성은 결국 옵아트 패션을 텍스트화 한다. 즉 사회·문화적 맥락 속에서 다양하게 해석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놓는다. 현대의 물질문명과 기계 문명에서 오는 인간 소외의 과정, 대중화에서 형성되는 인간의 획일화, 테크놀로지 문명 등 다양하게 옵아트 패션의 배경을 설명할 수 있다.

둘째, 옵아트는 관객의 참여로 인하여, 비로서 완성되는 시각 예술이다. 따라서 옵아트는 관객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작품에 익명성을 부가한다. 예술가에 따른 개성의 차이가 타 미술 분야 만큼 크지 않은 이유도 여기에 있다. 옵아트 패션의 친화성을 이러한 정신에서 비롯된 것이다.

셋째, 착시를 이용한 역동성의 표현은 옵아트의 개념의 핵심이자 조형성의 중요한 특징이다. 즉 고정된 실체가 움직임을 보이며, 실체와는 다른 형태로 인지된다. 패션에서 이러한 표현은 즉 고정된 신체에 대한 저항적 의지를 표명하는 것이다.

옵아트는 정보화 사회로 대변되는 포스트모던 사회에서 예술에 새로운 의미를 부여하였다. 즉 예술가의 역할과 감상자의 역할, 나아가서는 인간의 역할에 대한 예술 작품의 새로운 개념을 제기한 것이다. 옵아트는 인간의 일반적인 감각 능력을 통하여, 인간의 심리, 인간의 생리학적인 시각 현상, 그리고 치밀한 계산을 요구하는 지적인 능력, 그리고 사회의 모든 영역에 대한 새로운 인식 등을 표현하기 위한 유용한 도구가 되고 있는 것이다.